

- 주요 뉴스: 미국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 경제 전망 고려 시 금년 1회의 금리안하가 적절
 - ECB 주요 인사, 프랑스 금융시장을 주목. 과도한 우려 불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
 - 중국 5월 산업생산 및 신규주택 가격, 경기 둔화 지속되고 있음을 시사
 - 중국 인민은행, 1년 만기 중기유동성지원창구(MLF) 금리 동결. 환율 안정 등을 고려
- 국제금융시장: 미국은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 발언, 증시 낙관론 등이 영향
 - 주가 상승[+0.8%], 달러화 약세[-0.2%], 금리 상승[+6bp]
 - 주가: 미국 S&P500지수는 AI 및 반도체 등 기술주 강세 이어지며 사상 최고치
유로 Stoxx600지수는 여행 관련주 매수 증가 등으로 0.1% 상승
 - 환율: 달러화지수는 프랑스 정치적 불안 다소 진정에 따른 유로화 반등 등으로 하락
유로화 가치는 0.3% 상승, 엔화 가치는 0.2% 하락
 - 금리: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의 일부 매파적 발언 등이 반영
독일은 미국 국채시장의 영향 등으로 5bp 상승

※ 뉴욕 1M NDF 증가 1377.5원(스왑포인트 감안 시 1380.0원, 0.1% 하락). 한국 CDS 강보합

주요지표					주요지표				
		6/17일	6/14일	전일대비			6/17일	6/14일	전일대비
주가	미국	5,473.2	5,431.6	+0.77%	국채금리 10y	미국	4.28%	4.22%	+6bp
	유럽	511.49	511.05	+0.09%		독일	2.41%	2.36%	+5bp
	중국	3,015.9	3,032.6	-0.55%		영국	4.12%	4.06%	+6bp
	일본	38,102	38,815	-1.83%	CDS 5y	한국	36bp	36bp	+0bp
	한국	2,744.1	2,758.4	-0.52%		중국	67bp	68bp	-1bp
환율	달러지수	105.34	105.55	-0.20%	위험지표	EMBI+	-	385	-
	유로화	1.0734	1.0703	+0.29%		VIX	12.75	12.66	+0.71%
	엔화	157.74	157.40	-0.22%		WTI유	80.33	78.45	+2.40%
	위안화	7.2561	7.2557	-0.01%	원자재	구리	444.8	449.5	-1.06%
	원화	1,381.2	1,379.3	-0.14%		금	2,319.1	2,333.0	-0.60%

주: 주가는 미국 S&P 500, 유럽 Stoxx 600, 중국 상해종합, 일본 닛케이225, 한국 KOSPI.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.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(+/-는 절상, 절하). 자료: 블룸버그

금일의 포커스

■ 미국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, 경제 전망 고려 시 금년 1회의 금리인하가 적절

- 하커 총재는 향후 경제 전망을 고려할 경우 1번의 금리인하가 적절하며, 인플레이션 개선은 향후 수개월 더 이어지기를 원한다고 발언. 5월 소비자물가 결과가 긍정적이지만, 정책 당국은 인플레이션이 목표(연율 2%)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추가 증거들을 보기 원한다고 부연
- 아울러 최근 불확실성이 매우 높기에 상황에 따라 정책금리 경로가 달라질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. 만일 향후 수개월 동안 경제지표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이에 적합한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, 지금 당장 어떤 행동에 나서기는 어렵다고 첨언
- 클리블랜드 연은 메스터 총재는 정책 당국이 좀 더 많은 대화를 통해 어떻게 정책 결정을 내리는지 대중으로 하여금 깨닫도록 도와야 한다고 언급. 또한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에 대중의 기대를 조절하고 변동성을 최소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는 의견 피력
- 한편, CME의 FedWatch Tool은 금년 2회의 금리인하(9월과 12월, 각 0.25%p) 예상. 내년 상반기에도 2회(3월과 6월, 각 0.25%p)의 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

글로벌 동향 및 이슈

■ 미국 6월 뉴욕주 제조업지수, 전월비 상승. 향후 전망 역시 개선

- 6월 뉴욕주 제조업지수는 -6.0을 기록하여 전월(-15.6) 대비 상승했으나 0을 하회하여 기업들의 인식은 여전히 부정적인 것으로 확인. 개별항목 가운데 신규 수주가 보합을 나타냈고, 출하 및 운송시간 등이 개선. 이를 반영하여 전망지수는 전월비 상승(16.0→30.1). 고용과 근로시간 등은 전월비 부진

■ Goldman Sachs, S&P500 지수의 연말 전망을 5,600으로 상향

- S&P500 지수의 연말 전망치를 이전(5,200) 대비 높은 5,600으로 제시. 기업이익 증가와 AI 관련 투자자 기대에 따른 밸류에이션 상향 등이 이를 뒷받침할 것으로 분석. 한편 Evercore ISI는 연말에 S&P500 지수가 6,000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

■ ECB 주요 인사, 프랑스 금융시장을 주목. 과도한 우려 불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

- 라가르드 총재는 최근 정치적 불안 등으로 큰 폭의 변동을 나타낸 프랑스 금융시장을 주목하고 있다고 언급. 퀴도스 부총재는 극우 정당의 세력 확장이 유럽 통합의 움직임을 저해할 수 있다면서 다소 우려하고 있다고 발언
- 다만 레인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프랑스 금융시장 관련하여 지나치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평가. 최근 현상은 시장 내에서 가격 재조정이 진행되고 있다는 의미일 뿐, 시장 역학이 무질서한 형태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

■ 중국 5월 산업생산 및 신규주택 가격, 경기 둔화 지속되고 있음을 시사

- 5월 산업생산은 전년동월비 5.6% 증가해 전월(6.7%) 및 예상치(6.0%) 하회. 5월 소매판매는 전년동월비 3.7% 늘어 전월(2.3%) 대비 양호한 모습을 나타냈으나, 이는 팬데믹 이전에 비해 낮은 수준. 이번 결과는 경제회복이 여전히 취약하며, 이에 당국의 경기부양 지원이 필요함을 의미
- 한편 5월 70개 도시 신규주택 가격은 전월비 0.71% 하락했고, 이는 `14년 10월 이후 최대폭 하락. 기존주택 가치도 전월비 1% 줄어 `11년 이후 최대폭 감소. 당국에서는 주택시장 회복을 위한 추가 조치에 나설 것으로 예상(JPMorgan, HSBC)

■ 중국 인민은행, 1년 만기 중기유동성자원창구(MLF) 금리 동결. 환율 안정 등을 고려

- 1년 만기 MLF 금리를 2.5%로 동결하고, 역레포 7일물 금리도 1.8%로 유지. 아울러 MLF를 통해 1820억위안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. 정책 당국은 외환시장의 안정과 균형을 위해 금리인하를 지연(ING)

■ IMF, AI 관련 부작용을 경고. 실업보험 확대 등의 대책 마련 서두를 필요

- AI의 확산 영향으로 생산성이 크게 향상될 수 있지만, 숙련 노동자의 일자리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경고. 이를 위해 실업보험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

주요 경제지표

■ 주요 경제 이벤트(6/18 현지시각 기준)

- 연준 쿣 이사 및 구글러 이사, 리치몬드 연은 총재 및 시카고 연은 총재 발언
- 미국 5월 소매판매 및 산업생산, 호주중앙은행 통화정책회의

해외시각 및 외신평가

■ 글로벌 경제 및 주가 전망, 새로운 차기 지도자 출현 여부가 중요 - Financial Times

(Why markets like to see new political faces)

- 금년 세계적으로 30개국 이상에서 주요 선거를 치를 예정. 역사적으로 우파 혹은 좌파 정부, 여소야대 혹은 여대야소 등의 정치 상황이 경제성장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모습. 다만 한 연구에 따르면, 새로운 지도자 출현 여부가 우수한 경제 성장 및 주가 상승과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확인
- 일반적으로 선진국과 신흥국 모두 기존 지도자가 연임할 때 경제 성장률이 부진하고 주가 상승률이 감소. 특히 미국의 경우 1860년대 후반 이후 8명의 대통령이 두 번의 임기를 채웠는데, 평균적으로 첫 임기에는 주가 수익률이 80%에 달했으나 두 번째 임기에서는 29%에 불과

■ 유로화 가치 하락, 정치적 불안과 연준과의 정책 괴리 등이 주요 원인 - 블룸버그

(The Euro Is Trapped Between Devilish Fed and Raging Political Seas)

- 유로화는 EU 내 극우파 정당의 우세로 인한 정치적 불안정과 연준의 통화정책 등의 영향에 직면. 이에 4월부터 강세를 나타냈던 유로화는 6월 중순 이후 하락하며 그 동안의 상승분을 반납했고, 영국 파운드화 및 스위스 프랑화 대비로도 약세. ECB에 따르면, 주요국 중앙은행의 유로화 보유액도 감소하기 시작
- 만일 역내 주요국의 정치적 불안이 심화될 경우, 해당 국가의 신용등급 하락은 EU 전체의 재정위기 및 유로화 가치 하락을 초래할 가능성. 또한 연준과 ECB의 상이한 금리인하 경로도 유로화 약세 요인

■ 중국의 위안화 약세, 무역불균형 및 보호무역주의 논란 심화시킬 우려 - Financial Times

(Renminbi likely to draw fire as trade tensions mount)

- 중국은 경제 성장을 위해 국내투자 및 수출확대에 집중. 다만, 여타 국가에서는 위안화 약세로 중국 수출업체가 지나친 이득을 얻고 있다는 불만이 증가하고 있으며, 이에 따라 무역불균형 논란도 심화시킬 전망
- 실제로 각국의 對중국 보호무역주의가 강화. 일례로 중국을 겨냥한 무역제한 조치는 '18년 이후 거의 4배 증가. 어떤 한 국가에서 보호무역주의를 시작하면 상호 추가 제재 등으로의 고착화 진행이 일반적 현상. 그러나 중국은 내수 한계로 수출위주 전략을 고수할 수밖에 없어 관련 분쟁은 심화될 소지

■ 미국의 관료주의 범람, 성장과 재건의 걸림돌 - Financial Times

(How red tape is holding the US back)

- 미국에서 복잡하고 과도한 법과 규정으로 점차 민간과 공공분야 모두 신속한 조치가 감소하는 등 관료주의 확산 신호가 발신. 실제로 희토류 생산에 필요한 인허가 기간이 5~6년에 이르며, 규정 체계도 복잡한 상황
- 일부 연구에서 관료주의 확산에 따른 비용은 GDP의 17%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. 특히 의료보건 부문의 경우 초과 비용 가운데 30%가 관료주의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. 이에 신속한 정책 결정 및 시행을 위해 관료주의에 내재된 단점을 수정할 필요

■ 미국 차기 정부, 트럼프 혹은 바이든 모두 과도한 재정지출 역풍에 직면할 전망 - WSJ

(Trump vs. Biden: An Economic Gamble Either Way)

■ 미국 증시는 상대적 고평가 국면, 다만 버블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려운 편 - 블룸버그

(Double-Digit US Stock Returns Are in the Past, Bubble or Not)

■ 일부 헤지펀드, 미국 주가의 추가 상승 전망에 회의적. 변동성 확대를 경계 - 블룸버그

(Hedge Funds Turn Cautious on Stocks Even as Wall Street Strategists Get Bullish)

■ 프랑스 극우극좌 정당, 대중융합주의로 재정적자 및 부채 증가 초래 예상 - Financial Times

(The fantasy economics of France's far right and left)

금융시장 주요 지표



자료 : Bloomberg



자료 : Bloomberg



자료 : Bloomberg

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;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문의: 02-3705-6172, E-mail jsjeong@kcif.or.kr